

3월 1주 수행일기 <D>



조주호

화가, 광주대 겸임교수

뒤돌아 생각해 보면 내가 불교와 인연이 있었다는 것이 당시의 내 성격상 믿기지 않는다. 지금은 나의 법우인 혜정(慧頂) 김인경 거사와 함께 광주에서 선도회를 이끌어가고 있지만, 그때는 무신론자는 아니지만 종교 같은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항상 알 수 없는 인연 속에 존재하고 있지 모른다는 생

리교 별 생각이 다 떠오르니 금방 포기한다. 세상에서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물며 각(覺)을 이루고 자기 본래모습을 찾는 일이 그리 쉽겠는가. 조금 참다보면 저절로 쉬워지며, 그 회열을 한번 맛보기만 하면 놓을래야 놓을 수 없는, 자신들의 소중한 일이 된다. 면밀한 호흡아래 화두에 자기 전신을 맡기고 그 호흡에 들었을 때, 세상은 그대로 여여히 드러나게 된다. 그 회열을 금은보화, 높은 직위와 바꾸겠는가.

참선을 해 나가다보면 어느 때 내가 문득, 자신이 변해 있음을 알게 된다. 나만을 위한던 사람이 남을 생각할 줄 알게 되며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던 사람이 사물에 감사함을 알게 된다. 자기 일에 충실하여 자기 발전을 이루게 되며 슬픈 일, 기쁜 일, 괴로운 일 등 세상만

선하면 남 이해하고 자신의 변화 느껴

수행 세상일과 달라 바른 스승 만나야

각을 해본다.

선(禪)이란 사물과 한 몸이 되는, 다시 말하면 나를 잊는 훈련이다. 나를 망각함으로써 그 힘으로 나에 충실하여 타(他)를 돌보게 된다. 세상의 이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나'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적인 측면에서 보면 너, 내가 없다. '우리는 한 몸이다'는 사실을 금방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비로소 너는 너, 나는 나를 안다. '천상 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것도 그와 같은 뜻이다.

이러한 사실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참선이라는 행이 필수 불가결하다. 단순히 좌포에 앉아서 체득되는 그 기초적 경험에서 나오는 힘은, 변하지 않으며 항구히 지속된다. 아름다운 음악을 듣거나 좋은 책을 읽어 느끼는 감동도 큰 회열이 있지만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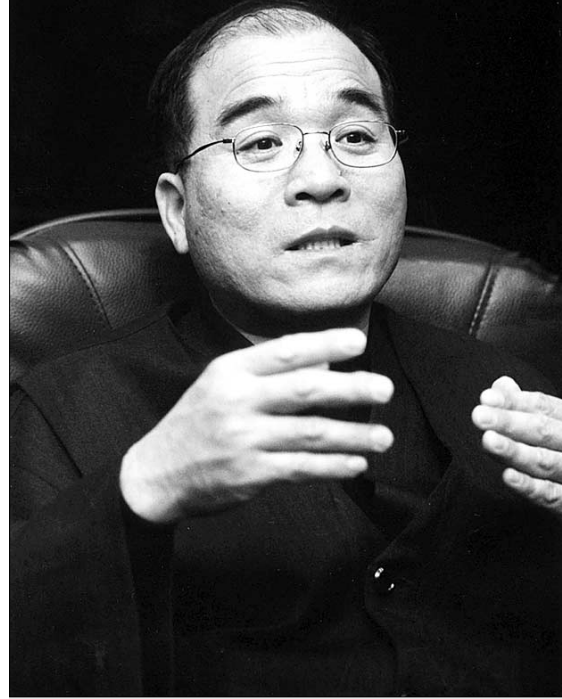
선은 행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몇 분 알아보면 다리로 저

사에 슬기롭게 잘 대처하게도 된다.

요즘 사회 분위기가 복잡하여 정신적으로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 참선이나 단전 호흡 등에 관심이 많아졌다. 그러나 올바른 스승을 찾아가 공부하는 것 또한 무척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수행법은 세상 일과 달리 한번 어긋나면 모두를 그르치게 하기 때문이다.

바르고 건강한 가정, 율고 정직한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바로 나 자신부터 변화해야 한다. 선은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좋으니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고요히 사색의 세계로 전환하여 작은 자기를 버리고 큰 흐름에 자기를 맡겨보자. 거기에 서는 말이 필요 없는 큰 공덕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된다. 그 공덕력은 비록 내 자신이 느낄 수 없지만 그 에너지는 산천초목 세상만물에 전파되어 되어 그들을 깨어나게 할 것이다.

'지켜보는 마음' 진리 깨닫고 부처되는 길



이제열 법사

유마선원의 '금강경 공관법'

"공관(空觀)의 목적은 절대 허망한 마음을 얻는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에 있어서는 오히려 허망한 현실을 바로 보고 바로 깨달아 허망치 않고 거저되지 않은 부처의 실상법계(實相法界)에 들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10월 17일 서울시내의 한 빌딩에 위치한 포시즌즈 호텔 의실, 이경주 대표이사를 비롯한 20여명의 직원들이 유마선원 이제열 원장의 '금강경 강의'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사진 오른쪽). 포시즌즈를 중심으로 직접적 근거와 전통에 바탕을 두고 효과적인 수행법으로 제시한 '금강경 공관법(空觀法)'에 대한 개론적 설명도 이어졌다. 법회가 끝난 뒤, 이제열 원장을 만나 수행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간화선 참구의 실제' 논문 발표

화두참구의 바른 방향 주장



김영욱

오행정진은 하고 싶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 망설이는 발자들이 적지 않은 참선. 한국불교의 대표 수행법인 간화선의 실재를 고찰한 논문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영욱(사진)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최근 <보조선상 제19집>에 발표한 논문 '간화선 참구의 실제'를 통해 '화두공부에 있어서 일상은 생활의 무대이자 공부를 촉발하는 유력한 장'이라고 전제하고, "일상에서 빚들이나 끊어질 없이 화두를 의식하다 보면 그 본래의 뜻을 성취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무(無)'자 화두를 중심으로 서술한 이 논문에서 김영욱 씨

▲공관법이란 어떤 수행법인가. "공관법이란 자신과 세계의 근원인 마음을 관찰하여, 일체를 진실되게 있다고 보지 않고 공하다고 보는 공부법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허망관(虛妄觀)이나 환관(幻觀), 무상관(無常觀)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금강경공관법이란 '금강경 사구계를 통해서 일체법이 공한 도리를 깨닫게 하는 관법에 의한 선정 수행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존 수행법과 다른 점이 있다면. "공관 수행의 가장 큰 특징은 '지관상수(止觀雙修)'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지관은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다 빼놓지 않고 알아채고 꿰뚫어 보는 것을 말합니다. 제대로 수행 체험을 하게 되면, 여래이자 진어이며 관자재이며 주인공인 참마음이 허투루일 생활 가운데에서도 흔들리거나 사라짐이 없이 밝고 뚜렷하게 비추면서, 수행자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것

'공한 도리' 깨닫게 하는 선정 수행법

'사구계' 마음깊이 새기는 일 중요

염불하듯 일념으로 집중, 놓지 말아야

거리들을 남김없이 알아채고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수행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공관법을 익히기 위해서는 '법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 비상 즉견여래'라는 계승을 잘 이해하고 파악하여 마음에 깊이 새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이 계승 가운데 앞의 두 구절인 '법소유상 개시허망'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사구계중 뒷구절을 생략한 이유는 '법소유상이 개시허망(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것)'임을 관하는 것이 곧 '약견제상비상(모든 모양을 접하더라도 그것들이 진실한 상이 아니라고 보라)'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즉견여래'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수행자는 늘 염불하듯이 '법소유상 개시허망'을 일념으로 외워서 집중을 이루어야 하고 생활 가운데에서도 잊고 놓고 다니고 일하는 중에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공관법에서는 마음을 관(觀)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은데요.

"관이란 마음이 마음을 보는 공부입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체의 번뇌 마음을 또 다른 마음이 놓치지 않고 주시해 봄으로써 번뇌 마음을 깨뜨리고 주인공인 진여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관법이 되기 위해서는 평소의 마음에서 그 마음을 지켜볼 줄 아는 마음 하나를 또 만들어 키우고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지켜보는 마음' 이아말로 지혜를 낳고 깨달음을 열게 하여 모든 부처님들과 하나되게 하는 통로라 할 수 있습니다."

▲공관법 수행을 통해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밥먹고 말하고 일하고 자자고 하면서도 틈틈이 마음을 '법소유상 개시허망'하고 챙기는 것을 생활화해서 한 고비 즉, 체험을 겪게 되면 비로소 어떤 마음 어떤 감정이라 할지라도 모두 놓은 바가 없이 밀밀하게 다 비취할 수 있는 때가 옵니다. 모든 것을 자기 마음 하나에 두고 '개시허망'으로 돌리게 되면



큰 삼매를 얻게 됩니다. 이것을 '회광반조삼매(迴光反照三昧)' 즉, '어둠된 마음을 빛으로 돌이켜 비추는 삼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불법의 정통 선법인 것입니다."

▲수행 과정에서 체험하는 경계를 극복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공관법의 근간은 어느 한 법도 세우고 인정할 게 없는 도리로부터 비롯됩니다. 따라서 공관법을 뒤는 사람은 이 세상의 어느 것도 마음으로 인정해서는 안됩니다. 인정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생사법이며 유위법이며 중생법이 되는 것입니다. 수행에 의해 얻어진 마음도 또한 관찰해야 할 대상으로 두고 관찰에서 관찰을 계속하여 그 관이 끊임없이 확장이 될 때 사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끊어져 그 마음이 법계에 두루해지고 자신과 마음과 세상이 동체가 되어 차별없는 부처의 공덕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중국 관정스님 순회법회

중국 복건성 선유현 적수암사에 주석하며 전세계에 정토선(淨土禪)을 보급하고 있는 관정스님이 국내 순회법회를 연다. 관정스님은 10월 28-29일 대구 광덕사(053-767-2266), 10월 31일 청주 정토마을(043-298-2258), 11월 2일 인천 범명사(032-576-9741)에서 각각 설법한다. 관정스님은 염불과 선을 접합한 정토선을 가르치고 있다.

조심선원, 활안스님 친견 및 참선

인천 조심선원(선원장 선광)은 11월 1-2일 전남 순천 송광사 말사인 천자암에서 조실 활안 스님 친견법회 및 참선 수행을 실시한다. 이일 천불천탑의 비밀을 간직한 운주사 순례도 실시한다. (032517-3001)

깊은 가을 소백산맥 속에서 흐르는 부처님음성...

도락산 광덕사선원 국제총림 불사기원 가을 산사음악회

조선조 우암 송시열 선생이 '도(道)를 깨닫고 즐길 만한 곳'이라고 해서 이름 붙여졌다고 하는 이곳 도락산은 그 우아하고 아름다운 풍광이 절로 빼어나 예로부터 시인묵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충북의 명산입니다. 이러한 명산에 본 광덕사 선원에서는 한국 불교를 전세계에 알리는 근본 도량을 건립하고자 하는 원력을 세우고, 그 불사의 시작을 기원하는 도락산 광덕사선원 국제총림 불사기원 가을산사 음악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제총림을 건립하고자함은 오늘날 중국과 일본에서의 선(禪)은 자체가 세속화되었으나, 오직 한국에서만 달마대사의 정통을 계승하는 유일무이한 선(禪)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서 선(禪)을 실수실참 하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의 수많은 수행자들이 직접 한국에 와서 참선을 수행하고자 원하지만,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제대로 없음을 예석하게 생각하던 차에 수많은 불자들의 지극한 신심과 원대한 원력을 힘입어 본 광덕사 선원에서는 전 세계의 수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진할 수 있는 대 국제총림을 건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 세계 각 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곳 광덕사 선원 국제총림에 와서 정진할 수 있기를 발원하오며, 모두가 대각(大覺)을 이루어 전 세계의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는 백안남자들을 양성하고자 하오니, 강호제위계서는 지혜로써 통찰하시어 성스러운 대작불사에 다같이 동참하시어 대복전을 이루시옵고, 자타가 일시에 성불도 하시길 삼보전에 발원하오며 인연있으신 분들은 모두 오셔서 다함께 길이 마음 행복할 수 있는 인연을 성취하시옵기를 삼가 권장합니다.

프로그램

- 일시 : 2003년 11월 1일(토) 오후 4시
- 장소 : 광덕사선원 극락보전
- 주관 · 주최 : 광덕사, 광덕사선원
- 문의 : 광덕사선원 극락보전 043)421-7000, 6900
광덕사 043)421-4700

산사음악회 공연 내용

1. 국악 한마당 - 국립민속 국악원 사물놀이
2. LMB Singers - Loves of Music, Beacons of light (음악을 사랑하고 빛이 되는 사람들, 전문 성악인들로 구성된 남녀혼성 4부 중창단)
3. 김대환 - 현 중앙대 국악대학 교수, 일본 · 미국 · 프랑스 · 유럽 등 전세계 각국 순회공연,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타악연주자
4. 김성녀 - 국악인, 현 중앙대 음악대학 창작음악극과 학과장 (번지 없는 주막, 봉이 김선달, 늘부전, 배비장전 등 미당놀이 22여편 출연)

※ 연예인 다수 출연

오시는 길

▶ 대중교통

- 버스이용 -
- 1. 서울 : · 동서울 터미널(고속버스) ⇨ 단양 · 강남 터미널(고속버스) ⇨ 제천 ⇨ 단양
- 2. 대전 : (직행버스) ⇨ 청주 ⇨ 단양
- 3. 안동 : (직행버스) ⇨ 영주 ⇨ 단양

- 기차이용 -

- 1. 서울 : 청량리역 ⇨ 단양역
- *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단양까지 오시면 단양시외버스터미널에서 대강면행 버스 승차 ⇨ 대강면에서 택시 탑승(약 10분) ⇨ 광덕사 표지판 지나서 ⇨ 광덕사선원 극락보전

▶ 승용차

1. 서울 : 중앙고속도로 ⇨ 단양 IC ⇨ 단양방향 우회전(약 300m) ⇨ 예천 · 사인암 표지판에서 좌회전 ⇨ 사인암 · 방곡도에촌 방면 Y자길 우측도로 ⇨ 광덕사 표지판 지나서 ⇨ 광덕사선원 극락보전
2. 대구 · 부산 : 경부고속도로 ⇨ 서대구(금호 JC) ⇨ 중앙고속도로 ⇨ 단양 IC ⇨ 단양방향 우회전(약 300m) ⇨ 예천 · 사인암 표지판에서 좌회전 ⇨ 사인암 · 방곡도에촌 방면 Y자길 우측도로 ⇨ 광덕사 표지판 지나서 ⇨ 광덕사선원 극락보전

▶ 단체접속

1. 서울 : 석가사 일각스님 02)354-1141, 011-9960-7978
2. 대구 : 금강문 김만삼 053)651-6523, 011-817-7752

광덕사선원 충북 단양군 대강면 직티리 354-2 ☎ 043)421-7000, 6900